

불교와 미학

동자승

'순진무구' 라는 관념 덧 씌운 현대 동자승

불교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상징은 연꽃이다. 그런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아이콘이 있다. 바로 '동자승'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불자 자녀들 중 대어섯 살 먹은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승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여 1~2주간 사찰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스님들처럼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울망쭈랑 쭈를 지어 법당으로 가서 예불도 드리고 바로 공양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 그지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절하는 것도 서툴다. 졸음을 못 이겨 예불 시간 중간에 법당 바닥에서 잠들기도 하고 식발할 때는 무서워서 영영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모습은 스님이지만 하는 짓은 개구쟁이이다. 하지만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린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그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천진불이요, 잊어버린 동심이다.

동자승의 이미지가 이처럼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것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출연하는 아이들도 실제 동자승이 아니라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단기출가 동자승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가 대중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과 월복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의 역할이 크다.

정채봉의 <오세암>은 설악산 오세암에 얽힌 구전 설화를 바탕으로 1984년 발표된 동화로서, 2003년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되어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까지 했다. <동승>은 월복작가 함세덕의 최고의 작품이며 한국 근대희곡사상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1939년 3월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연극 경연대회에 <도넛(道念)>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초연된 작품이다. 해방 이후 간행된 희곡집 <동승>에 수록되었으며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승>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월복작가의 작품이 해금된 1988년 이후이다. 그 후 연우 무대 등 여러 극단에서 잇따라 공연 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2003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두 영화는 모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론가 김방욱이 비판하듯이 이 영화는 '상투적인 감성에 의존하는 서정성이 짙은 작품'이며 영화의 대중적인 성공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감성에 빚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들은 종교적인 구도, 다시 말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구도의 영화로 볼 수 있다.

두 영화에서 '어머니'는 산사에서 외롭게 자라는 동자승에게는 고독의 원인이자 그리움의 대상이다. 여기서 어머니 혹은 여성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코드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존재이자 내가 돌아갈 고향이며, 칼 응이 말한 것처럼 나의 근원인 아니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동승의 그리움은 세속적인 정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암>과 <동승>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어떻게 자신의 근원으로



대표 불교 영화 '동승' (사진 왼쪽)과 애니메이션 '오세암' (사진 오른쪽). '동승'과 '오세암' 모두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기저에 가진다. 두 작품의 동자승은 '순진무구'의 상징으로 비쳐지는 데 이는 현대 동자승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회귀하는 종교적인 구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도자로서의 동자승의 이미지는 불교경전이나 설화에서 익숙한 것이다. 그런데 <오세암>이나 <동승>의 동자승의 이미지에는 구도자의 이미지보다 천진난만한 동심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독경 소리보다 마을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더 좋아하거나 스님 몰래 토끼사냥에 정신을 파는 모습, 스님을 '스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결례는 물론이고 이틀에 한번 이불에 오줌을 싸고 스님들 신발을 모조리 나무 가지에 매달아놓으며 장난을 치는 동자승은 이 영화들에서 동심의 상징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순수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승>에서 동자승의 철부지 행동을 불교 계율의 입장에서 단죄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면 <오세암>에서는 동자승의 천진무구함이 영화를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두 영화는 모두 순진무구함을 동자승의 본질로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동승> 이후로 우리 주변에는 동자승의 이미지를 차용한 캐릭터 상품들이 많아졌다. 원성스님의 <풍경>에 그려진 동자승의 해맑은 모습과 눈물을 머금은 눈동자는 그의 개인적 경험과 맞물려 <동승>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그 밖에 기도하거나 참선하거나 또는 책 읽고 공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동자승 인형이 상품화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용으로 단기출가 하는 동자승에 이르기까지 동자승은 불교적인 감수성과 본질을 전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있다.

불교에서 구도자로서의 동자승은 낮은 존재가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존재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있으며, 선재동자가 찾아간 53명의 선지식 중 51번째 선지식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있다. 이들은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여 청정한 지대로

- 잊어버린 동심 상징 '동자승'
- 영화 '오세암' · '동승' 영향 커
- 구도자보다 천진불로 이미지화
- 화엄경 선재동자, 덕생동자 등
- 전통적으로 구도자적 경향 강해
- 현대 와서 불교 대표 캐릭터로

세상이 모두 환영과 같음을 깨달았지만 보살의 원력과 지혜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난 것이다. 경전 속의 존재가 아닌, 실제 역사에서도 동자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로부터 시작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직 식발하고 득도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4살에서 8살, 많게는 20세까지의 아이들이 승원에 거주하면서 스승들과 함께 생활하고 수행을 했다. 동자승을 범어로 구마라(kum?ra) 또는 구마라카(kum?raka)라고 부르며 '동진(童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자들이 동녀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동진 출가를 매우 높이 평가해왔다. 이산해연 선사의 <발원문>에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에 물 안 들고 청정법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계를 털끝없이 범하리라."라고 하고 있듯이 그들이 동자승이 되기를 발원한 가장 중요한 뜻은 지계 청정이었다.

신라시대부터 미륵불을 아기부처로 형상화하거나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 등 아기부처, 아기보살상으로 조성한 경우가 있지만 보살상을 동자상으로 조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살이 여래의 왕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처럼 그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동자상은 그 자체로 예경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다. 상원사 문수 동자를 비롯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자상은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또한 동자승의 순진무구함을 묘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동자승 이미지가 강조하는 천진난만한 현대 동자승 캐릭터만의 독특한 점이며, 동자승이 불교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된 것도 최근에 생긴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영국의 계관시인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에 나오는 유명한 시구이다. 시인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천진한 마음이 늙은 뒤에든 변치 않기를 기도한다.

이 시에서 워즈워드는 어린이의 마음을 자연과 교감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린이의 마음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서, 가식이나 번덕, 이기적 욕망이나 계산을 알지 못하는 해맑고 순수한 상태로 바라보는 워즈워드의 관점은 루소 이전의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인간은 백지(tabula rosa) 상태로 태어난다고 본 로크는

어린이의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서에서도 어린이는 미성숙의 상태로 이해되었다. "젊은 이가 어른을 섬기며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긴다"는 <소화>의 구절은 동아시아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도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장유유서와 신분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어린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을 차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아동의 탄생>을 저술한 필립 아리에스에 따르면 6세기나 17세기 이전의 서양에서는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취급하지 않았으며 하층민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런 의식이 없었다. 어린이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티 없는 순수함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은 중세인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동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린이는 심오한 '시적 정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낭만주의적인 아동관이 널리 퍼진 것은 루소의 <에밀> 이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순수성을 통해 불교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오세암>과 <동승>, 그리고 수많은 동자승 캐릭터는 불교의 전통적인 이미지라기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자승 캐릭터가 최근에 와서 대중적인 선호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대적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가능하며 환경의 일이지만 전통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점을 덧씌우지 않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연재에서 전통적인 동자승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사리)



통판차상 (640×400×180) -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통판차탁 (500×300×100) - 정가 100,000원
할인가 60,000원

100% 국내제작

수풀림 통판차상·차탁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취를 담았습니다!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차상·차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51-583-9925



신원정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침대(주)
www.supulrimbed.co.kr